

# 향나무 문으며

## '좋은 세상' 염원



폐사자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당진 안국사지



전쟁은 지옥중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쟁은 지옥의 풍경을 연출한다. 오랫동안 지옥 세상에 본적을 두고 살아 이수리(阿修羅)의 습성이 몸에 밴 사람들이 수시로 이 세상에 출몰하며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언어가 없으며, 오직 '충격과 공포'의 무기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편가르기와 패싸움에만 능숙할 뿐이며, 총구와 포신의 방향만이 역사를 개척하는 이정표인 것이다. 인간 세상 어딘들 전쟁의 그늘이 없으리란 또 다시 사막의 모래알들이 피로 물을 들이니 거기에 대물림하는 증오와 분노의 씨앗들이 안타까운 것이다.

당진 땅 안국사 터는 그저 편안한 곳이다. 작아서 좋고, 짙이 아닌 절터라서 좋다. 안국사터에 가면 이미 전쟁의 그늘은 지워지고, 활미꽃 꽃다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안국사 터에 가면 '탕약(湯藥)' 냄새가 난다. 화향(香火)이 끓인 대신 탕약으로 나라와 민생들의 통증을 달래주는 것이다. 오천년이면 이 나라의 역사도 늙었다. 나무로 치면 노송쯤 되며, 바위로 치면 첩첩이끼를 거져 삼아 두른 너럭바위쯤 될 것이다. 보약을 먹을 때도 된 것이다. 전쟁도 겪을 만큼 겪었기에 용포를 두른 사람이라면 구국도생(救國度生)의 요령도 알 것이고, 곱탈과 굴종의 수모도 당할 만큼 당했기에 이 땅의 백성들이라면 말발굽 소리만 들려도 베개를 높이는 법쯤은 알 것이다. 안국사 터에는 매향비(埋香碑)가 있다. 조상들의 타임 캡슐인 '침향(沈香)'을 문

었다는 매향에 관한 기록이 빛바랜 세월 속에서도 진한 관솔 향내를 품고 있는 것이다. 안국사 터 매향비는 거대한 몸집의 범선(帆船)처럼 생긴 '배바위'이다. 어떻게 세월의 풍랑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는지, 조그만 절 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큰 몸집이다. 이 배바위에는 뱃머리와 꼬리 부분에 음각의 글씨들이 줄을 맞추고 있다. "경오년(庚午年) 2월에 북쪽 '천구'라고 하는 포구 동쪽에 향을 문었으며 화주승과 주민들의 힘으로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경오년의 가장 최근은 1990년이므로 그로부터 60년 전적 몇 번의 갑자를 거스른 어느 해 경오년에 이 비를 세웠을 것이다. 매향비는 미륵이 이 땅에 내려와 극락을 이루어 주길 기원하면서 향을 문고 빌었다는 미륵신앙의 산물이다. '미륵하생 신앙'은 곧 변혁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에 매



◇작고 소담하지만 눈여겨 볼수록 향내나는 안국사터에는 미륵삼존불 입상(보물 제100호)과 오층석탑(보물 제101호)이 있다.

향비를 세우는 일은 비밀결사처럼 은밀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다. 매향비는 이 곳 안국사지 뿐 아니라 당진에서 조금 떨어진 해미에서도 발견되었고, 고창 선운사, 영분에 음각의 글씨들이 줄을 맞추고 있다. "경오년(庚午年) 2월에 북쪽 '천구'라고 하는 포구 동쪽에 향을 문었으며 화주승과 주민들의 힘으로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경오년의 가장 최근은 1990년이므로 그로부터 60년 전적 몇 번의 갑자를 거스른 어느 해 경오년에 이 비를 세웠을 것이다.

에서 흘러내리는 육수(陸水)와 산협 사이를 10여리 거슬러 올라오는 황해 조류가 서로 만나 합수가 되는 장수강(長水江)이란 곳에 묻혀있던 것'이라고 한다. 미당은 그 냄새를 일컬어 '실과와 생강과 미나리와 새빨간 동백꽃, 거기에 바다 복지느러미의 냄새를 합친 듯한 미묘한 향내'라고 하였다. 향은 신에게 바치는 으뜸의 공물이다. 향

상태나 오종종한 모습들이 조금도 불편한 기색이 없다. 보물 제101호인 안국사지 오층석탑은 돌로 쌓은 2단의 축대 중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다. 석탑 역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몸돌이 틀어지고 하대석이 주저앉은 듯하나 소박한 솜씨를 그대로 간직한 아담한 몸매는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석탑 옆으로는 절 터를 돌보는 듯한 암자 같은 민가가 한 채 있는데, 절 터에 진동하는 탕약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이 곳이다. 안국사 터에는 탕약재 뿐 아니라 1백여 개에 달하는 향아리들이 절 터를 꼭 채우고 있다. 향아리들은 이 절에 머물던 대중들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어떤 것은 포대 화상으로, 어떤 것은 동자승 모습으로 불쑥 내민 복장(腹藏)마다 된장 고추장을 담고 민중들의 양식이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폐허가 된 이후에도 보약을 먹어 정신 차리게 하고, 된장을 달여 살피우고 싶은 것이 안국사지의 바람인 셈이다.

을 하고 있는지 인기척을 하여도 반응이 없다. 안국사 터에는 업나무가 눈에 띈다. 업나무는 환약재로 쓰일 뿐 더러 무속에서는 귀신을 막는 주술적인 도구로도 쓰인다. 이 땅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기에 온갖 귀신, 도깨비들을 물리치기 위해 온 몸에 가시가 돋친 업나무들이 자생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소풍지로 적당한 안국사 터가 숲 냄새, 화향품 냄새로 뒤범벅된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제나 찾아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라의 고마움과 불가의 넉넉함을 깨닫는 절 터, 안국사지는 안국사지로 남는 것이 좋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부어 정림사지 편 사진=고영배 기자

### 미륵신앙 간직 매향비... 거대한 '배바위' 코 마멸 삼존불 입상 얼굴에 '충청인 미소' 잔잔히 주변 나무 벌목, 계획적 유원지화 곤란

의 종교이기도 한 불교에서 '침향'의 존재는 '향 문화' 상징하는 꽃인 것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개펄에 참나무 또는 향나무를 문어두면 천년의 세월을 거쳐 단단하게 응고된다. 침향이 된 향나무는 강철처럼 단단해서 두드리면 쇠소리가 난다고 한다. 구효서는 <나무남자의 아내>에서 침향에 관해 미당의 안목을 빌렸다. 미당(서정주)은 침향을 가리켜 '물속에서 몇 백년을 묵었다가 떠 오른 참나무를 말린 것'이라 하였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동쪽 노령산맥

터는 작고 소담하지만 눈여겨볼수록 향내나는 것들이 많다. 절 터 중턱에 위치한 삼존불 입상은 보물 제 100호로 월악산 미륵대원지의 미륵대불 입상을 닮았다. 방형의 보관을 쓴 본존불은 아미타불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하였는데, 손가락은 굵고 입은 작으며 코는 마멸되었으나 예의 '충청인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좌우 협시보살은 조각 수법은 본존불을 닮았으나, 오른쪽 보살은 무릎 아래가 땅 속에 묻혔고, 왼쪽 보살은 얼굴의 절반 이상이 파손된

살펴보면 안국사지 주변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유원지로 다듬어지고 있는 듯하다. 절 터 뒷 기술에 수많은 잘려나간 소나무 그루터기와, 근래에 새로 지은 듯한 대나무 울타리의 '토굴' 한 채가 그렇게 보인다. 출입금지 팻말을 걸고, 사립문을 닫은 토굴 안에는 어느 눈 푸른 남자가 면벽



◇조그만 절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큰 몸집의 배바위. 이 바위에는 매향에 관한 기록이 빛바랜 세월 속에서도 진한 향내를 품고 있다.

#### 안국사터 가는길

안국사 터는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에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서산·당진IC에서 내려 당진에서 32번 국도로 서산방향 7.9km를 가면 안국사 표지판이 나온다. 안국사 터는 수당리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저수지를 끼고 골짜기 안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미국 버클리에서 20년간 한국불교 포교에 힘쓴 현웅스님의 법문집!

# 묻지 않는 질문

- 자네는 나를 속였네 -



현웅스님 지음 | 신국판 370쪽 | 칼라판 | 값 12,000원

깨달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먼저 명상을 해야한다.  
명상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 과정이다. 깨달음으로 이르는 과정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좋으니까 하고, 저것은 나쁘니까 안 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혼란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

## 번뇌와 망상을 없애려고 할때 현실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임지·윤창화 지음 | 320쪽 | 값 7,500원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불교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썼습니다  
예컨대 "여성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등등 150가지입니다